



8면

코로나19 정읍서 발생 시 "더이상의 확산 안돼"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음 8월 21일) 제26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道, 소재·부품·장비분야 산업 육성

정부 정책 선제적 대응... 경쟁력 강화위 구성 실행력 있는 과제 발굴·계획 수립 적극 나서

전북도가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발굴과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월 9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8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내년 2조 원을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빅3 산업에 투자하거나 유력하는 기업에는 현금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요기업 간의 상생 협업 유인체계를 마련해 기술개발이 생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추진체계를 도·도·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구축해 도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정책대상 핵심 품목이 388개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인프라 등 산업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한 점에 주목하고 자동차와 탄소산업 외에도 재생에너지 등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신산업 관련 기술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별 담당부서가 주도해 전문가 TF 구성, 지원공공 품목 및 유망기술 분석으로 산업 여건에 맞는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

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테크노파크는 품목·기술별 맞춤형 전문가와 산업별 적용가능 기업을 현장에서 발굴해 담당부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는 각 산업별 담당부서와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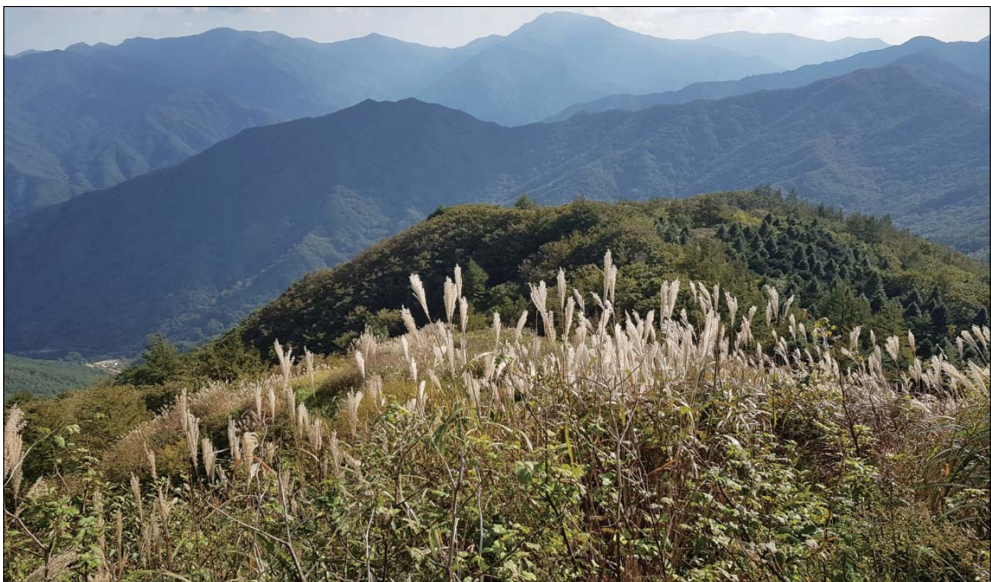
크노파크를 통해 마련한 분석 자료와 기초 대응 방안을 토대로 도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도내 '소·부·장' 산업의 중점 추진방향 및 중장기 육성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추진과제 실행계획 보고회, 분기별 추진 상황 보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열어 추진과제 이행상황

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대학·연구기관 기업들이 가진 산업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켜 정부의 20 전략에 대응하는 실행력 있는 과제들을 발굴·시행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지리산 아래봉의 가을 선선한 날씨가 이따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날씨가 온풍을 지리산 아래봉 정상에 역새가 높이 솟아올라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 방향 모색

전북도-이시카와현 화상회의

전북도가 6일 교류 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과 화상을 통한 정례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1년 이시카와현과 우호 협약 체결 이후 청소년 행정, 스포츠, 의회, 환경,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년 양 지역 파견교류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류회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로 바뀌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지역은 직접 방문 위주의 국제교류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서로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당장 내년도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 지역은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특히 내년 양 지역 교류 체결 20주

년을 맞이해 분야 확대 및 내실있는 교류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도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외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교류 지역간 의견 교환을 통해 비대면 교류 분야를 찾아내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도는 중국, 베트남 교류 지역과 순차적으로 1:1 교류회의를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호흡기·발열 환자 전담클리닉 가동

전주시, 코로나·독감 대비

전주시가 코로나19와 독감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등시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6일 호성전주병원과 전주다솔아동병원을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하고 호흡기 질환 진료를 개시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은 올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조치다.

시는 이들 병원에 국비 2억원을 투입해 호흡기·발열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장비를 구축했다.

전담클리닉에 내방한 환자는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 후 단순 호흡기 질환인 경우 일반 병원처럼 진료를 받게 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호성전주병원의 경우 병내 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다솔아동병원의 경우 덕진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게 된다.

전담클리닉은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진료는 별도의 독립 공간에서 이뤄진다.

소아·청소년과 성인 진료도 따로 하도록 했다. 진료 비용은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발생한다. 전화 상담 비용이나 감염예방 관리료는 면제된다.

시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진료 중단이나 의료인 격리 등의 걱정을 덜게 하는 동시에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클리닉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호성기전담클리닉 진료개시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의료진과 의료기관 또한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도교육청 "초등 저학년 맞춤형 한글교육"

희망교원 기초문해력 지도 연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2회기에 걸쳐 희망교원 100명(50명씩 2회기)을 대상으로 초등 1~2학년 기초문해력 지도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글 미해독 학생을 위한 답안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한글 책임교육을 통한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기간에 초등 저학년 한글수업이 운영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한글해독 수준을 진단한 후, 미해독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교구 보급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사로 나서는 이해영 교사(기초학력 파견교사)는 우리지역에서 개발한 '스비타 그림책'을 활용해 아이와 함께 읽기, 글자 써넣기 색칠하기, 오려 붙이기 등 다양한 한글놀이로 통해 한글 미해독 학생이 글자를 깨우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읽기교육 학생의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학습 방법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기초문해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